가면산장 살인사건

32143654 이지영

남자주인공 다가유키의 약혼자 도모미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는한편, 다가유키는 도모미의 집안과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여전히 좋은 사이를 유지한다. 시간이 지난 후, 도모미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다카유키는 도모미의 아버지 노부히코에게 별장에 초대를 받아 도모미의 가족과 함께 놀러가게 된다.

별장에 도착한 당일, 우연하게도 경찰에 쫒기던 강도들이 그 별장에 침입해 주인공을 포함한 7명을 인질로 삼는다.저마다 나름대로의 바깥에 도움을 청할 방법을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방해로 실패한다.

그리고 인질들중 한명인 유키에가 등에 칼이 꽂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강도들에겐 알리바이가 있는 상황이고 범인은 인질들중 한명으로 좁혀져간다. 서로가 서로른 의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도모미의 아버지 노부히코의 비서의 추리로 유키에를 죽인 사람은 도모미의 아버지 노부히코로 밝혀지나, 노부히코는 창문 밖 수영장으로 뛰어내린다.

그러나 잠시 후, 여전히 거실에 잡혀있는 다카유키에게 돌아온 노부히코는 아직 유키에가 살해당한 현장에 진실이 있다며 다카유키를 풀어준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돌변한 다카유키가 노부히코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느낀 다카유키가 시선을 들자, 2층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가족들과 강도들을 보게 된다. 죽은줄 알았던 유키에까지 함께였다.

사실 도모미의 사고는 다카유키가 의도한 것으로, 다가유키가 유키에에게 마음이 있는것을 알아챈 도모미가 약혼자에게 배신당한 슬픔에 자살한 것이다. 결국, 다카유키의 진심을 알아내기 위하여 가족들과 배우들(강도 역할)이 꾸민 것으로 일종의 연극이었다.

처음 이 책을 읽었던 때는 중학생때였다. 그때는 끝까지 읽지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읽게되어서 반가운 기분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애커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생각났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등장인물들을 감금해논 스토리가 비슷했다.

 다가유키가 처음 별장에 들어섰을 때 봤던 가면이 이 책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있었던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다가유키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도모미의 가족들도 살인사건을 꾸며 가면을 벗겨냈다. 그러나 읽으면서 다가유키의 거짓말을 밝혀낸 것만으로 충분한건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만약에 도모미의 아버지 노부히코 였다면 절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도모미가 자살이 맞다고 하여도 다가뮤키의 책임이 없지않기때문이다. 타인에 의한 자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을 속이는것이 제일 어러운 일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살다보면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사는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도모미의 죽음에 다가유키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한다면 어떻게 지게 하는게 좋을까. 다가유키의 사업이 망한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지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해도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법은 없다. 그래서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위해 가족들이 동원되고 배우마저 참여한 연극의 끝이 산장에서 나가달라는 것뿐이었다는게 너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든 생각은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사람을 배신하지말자였다. 한순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배신하려 가면을 쓰는 일은 앞으로도 하고싶지않다는 생각을 했다.